



논 농 사

◇ 보온 발못자리 설치

못자리 상토의 산소가 높으면 뜸모와 입고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pH를 반드시 4.5~5.5로 조정해야 하고 묘대의 초·중기에 밤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될 때는 거적등을 덮어 묘판의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묘대후기는 고온장애가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통풍순화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육묘기간중 뜸모나 입고병의 발생은 상토의 산도가 높고 주·야간 온도교차가 클때 발생되므로 발생이

보이거나 발병우려시는 약제를 사용한다.

못자리 시비량은 평당 질소 60g, 인산 50g, 가리 50g을 살포하면 충분하다.

◇ 보온절충못자리 설치

보온절충못자리는 못자리 설치 10~30일 전에 규산질비료를 모판 30평당 1포 사용하여 모를 튼튼히 키워야 하며, 모도열병의 사전방제에 힘쓴다. 보온절충못자리에서 흔히 파종후 복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진압 또는 복토해야 하며 복토함으로써 출아의 균일성, 종자전염에 의한 모도열병, 기다리병의 간접적인 방제에도 유리하다.

◇ 기계이앙 상자육묘

체아는 1mm 정도가 알맞으며 파종량은 상자당 소립종 100~110g, 중립종 130g, 대립종 140~150g을 파종한다.

싹틔우기는 출아기를 이용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온은 섭씨 30~32도에서 48시간 유지하면 0.8~1.0mm의 알맞은 싹틔우기가 된다.

숙화기의 적온은 낮온도 섭씨 20~25도 밤온도 섭씨 15~20도가 알맞으며 육묘상자를 치상하여야 할 때 강한 빛을 쬐면 백화묘가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기계이앙상자묘에서 뜰모와 입고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상토의 pH를 4.5~5.5로 유지하고 둘째, 주야간의 온도차를 가급적 줄여야 하며 셋째, 도열병을 방제해야 하고 기계이앙 상자모에서는 키다리병 발생이 극히 우려되므로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원 예

◇ 채 소

모균히기 일찍가꾸기 각종 채소
류는 본포에 아주심기전

에 모균히기 작업을 실시하여 저온 건조등에 잘 견디는 힘을 길러주고 활착이 빨리 되게 한다.

모균히기 작업은 낮에는 온상 창문을 열어주어 직사광선을 쬐어주고 불주기도 시들지 않을 정도로 제한해 주며 방에도 서리·바람의 해가 없는한 창을 열어주어 모를 굳힌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일시에 창을 열어주지 말고 아주심기 5~7일 전부터 창을 조금씩 열어주고 아주심기 3일전부터 완전히 창을 열어주도록 한다.

아주 심는 시기 본포에 아주심는 시기는 지역의 기상조건, 모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나 지온이 섭씨 12도 이상에 평균기온이 섭씨 13도이고 늦서리의 피해가 없을 때에 아주심거나 가능하면 더 널을 씨우거나 비닐멀칭을 하였을 때는 다소 일찍 심을 수 있다.

대체로 남부지방은 4월 하순, 중부지방은 5월 상·중순이 아주심는 적기라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크기로 볼 때 너무 큰 모를 심게되면 작업과 활착에 지장이 많으며 생육이 부진하여 수확이 늦어지고 수량이 감소되므로 적기에 모를 옮겨심도록 한다.